

大明復讎歌



[해제]

<대명복수가>는 1824년(순조 24) 창헌(蒼軒) 조우각(趙宇愨)이 지은 가사로 홍재휴(洪在休) 소장본, 김광순(金光淳) 소장본, 안영창(安永昌) 소장본 등의 이본이 있다. 홍재휴 소장본과 김광순 소장본은 표제가 『동음(東音)』으로 되어 있다. 안영창 소장본에는 작자를 영천(永川) 조진사(趙進士) 우관(宇寬)으로 밝히고 있으나 우관은 필사 과정의 오류로 보인다. <대명복수가>는 영천(永川)을 중심으로 경북 일원에 전하여 애송되던 가사로, 특히 영천 지방의 고로(古老)들이나 부녀자들은 이를 암송하는 이도 있음을 보아 창헌(蒼軒) 조우각(趙友愨)의 유작 중에 가장 널리 전송된 장편가사라 하겠다. 이 작품은 청나라를 쳐서 명나라의 복수를 하겠다는 이상을 읊은 작품으로 내용은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하여 멸망된 것을 슬퍼하며,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치욕을 설욕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였다. 명의 멸망을 비탄하고, 호란(胡亂)이 끼친 민족적 치욕을 설욕치 못하는 유분과 통한을 격렬한 어사로 도도히 역어가며 구화신을 통격하고 중국과 동국 일대의 총의열사를 모두어 명나라 황실을 회복하고 병자년의 성하맹을 설치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강화를 주장한 최명길(崔鳴吉) 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중국과 우리 나라 역대의 총의열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청나라를 쳐부수는 과재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나 회고적이고 보수적인 사대부 작자의 의식이 그대로 표현되어 그 문학적 형상화에서는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임진록>과 같이 전쟁으로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심리와 당시 팽배하였던 북벌의지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두 차례의 호란이 있는 다음 근 200년 뒤에 지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전에 비하여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변화의 요인을 명나라의 멸망에서 찾고, 그 회복을 바라는 데서 지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원문]

大明復讎歌

萬里館의 술을醉코 萬里秋風 다달나서
 古栢行 외운後의 出師表 노리흔이
 唐宋以上 다더지고 大明消息 어딴런고
 南寧土州 드러간後 永曆年號 그만이라
 唐虞天地 잇건만는 江漢祖宗 글넛도다
 萬折必東 이한句는 宣祖一生 말삼이오
 北虜치자 이經營은 寧陵십년 腐心이라
 有是君 ㅎ건마는 無是臣의 奈何런고
 欲挽銀河 洗舊都는 肅考大王 輿圖詩라
 世代가 寢遠ㅎ야 薄物細故 되단말가
 彊弱이 不敵ㅎ야 舍憤忍痛 ㅎ단말가
 히마다 冬至行人 鴨江건넌 어딴가노
 嗚呼嗚呼 復嗚呼라 處士大談 ㅎ야보시
 今年太歲 甲申이라 天道無往 不復일식
 風詩衰亂 極ㅎ중의 匪風下泉 ㅅ희잇고

十月乾陰 盛은곳의 地雷陽晝 다시나니
 胡無百年 넷말이라 제命이라 오힐소냐
 崇禎皇帝 遺民드라 臥薪嘗膽 멧百年고
 朝廷武臣 기다리면 黃河之水 말씨로다
 萬古忠義 ㄷ모다와 唾手燕雲 ㅎ야보식
 三代人物 尙矣로다 春秋以下 헤여보니
 尊周室 攘夷狄은 管夷吾도 일흠조코
 三寸舌 却帝秦은 魯仲連이 爽快ㅎ다
 抗燕死齊 王蠋이오 沼吳霸越 茫蠡로다
 鞭楚ㅎ던 伍子胥오 報韓ㅎ던 張子房이
 掘起龜豪 姑捨ㅎ고 中興名將 다불리니
 絳衣大冠 光武씩오 三國正統 蜀漢이라
 半壁江南 南渡宋은 忠憤더욱 激切ㅎ다
 李伯起 張魏公은 三河巡撫 먼저가고
 鄧司徒 馮大樹는 幽并經略 쏘보늬이
 轉運通判 冠準이오 贊畫從事 龐統이라
 陸軍都督 倪할런고 岳武穆 韓世忠이
 水軍都督 倪할런고 關雲長 趙子龍이
 遊擊將의 吳漢賈復 伏兵將의 張飛馬超
 그나마 忠臣義士 멧멧티 모혜션고
 十年漢節 蘇中郎은 罵律辭氣 堂堂ㅎ고
 一篇封事 胡澹庵은 斬檜談鋒 凜凜ㅎ다
 昭烈廟의 痛哭ㅎ던 北地王謀 마자오고
 舟中의 講學ㅎ던 陸秀夫들 업실소냐
 雷萬春 南霽雲은 扼腕ㅎ고 쉼여들고
 張叔夜 江萬理는 奮臂ㅎ고 일어서니
 江淮保障 張中丞은 風雲이 震盪ㅎ고
 盛服從容 趙通判은 義氣도 森嚴ㅎ다
 氣作山河 趙鼎이오 三呼過河 宗澤이라
 成仁就義 文文山과 焚舟戮力 張世傑과
 罵賊不屈 顏杲鄉과 抱帝號哭 李若水는
 丈夫烈氣 憤激ㅎ야 斗牛間의 썩쳐도다
 本朝人物 쑥차같이 洪武後 ㄴㄴ런고
 創業功臣 徐達花雲 建文死節 黃觀景清
 天地經綸 李太師오 日月精忠 方孝孺라
 嚴起恒 차자가니 瞿武秬의 눈물일쇠
 劉伯溫은 天文보고 史可法은 檄書지오
 浙江壯士 三千이요 河內精兵 十萬이라

關西兵은 左翼하고 山東兵은 右翼하야
 中原만 혼자갈야 東國도 가자시라
 壬辰年 再造恩德 神宗皇帝 이질소냐
 南漢山城 痛哭하신 우리大王 忠憤이라
 斥和하던 三學士는 犬戎을 庭叱하고
 自決하신 桐溪先生 社稷同亡 하자씨니
 丁卯年の 死節하니 昌城府使 金時若이
 錦州役의 虛銃늦흔 星州義士 李士龍이
 洪杜谷은 집이업고 李石溪는 외에드이
 갓한義理 臥龍草堂 瓢隱處士 風節이라
 胡勅나와 行盃홀제 駝駱蠶을 누업히며
 山東倡義 姜姓人의 朝鮮檄文 누지을고
 林寅觀等 본닌일은 朝廷公事 익들도다
 林下處士 北伐議는 잡잡이 외와시니
 白湖大爺 兵學制度 이번이야 슬지로라
 叛國魁首 弘立이는 都市中의 車裂하고
 江都失守 金慶徵은 鍾樓밧히 梟首하고
 講和大臣 崔政丞은 南大門의 付罰하고
 滄海力士 방마치로 汗의碑를 쉬다리고
 朱夫子 綱目筆로 尊周錄을 서운後의
 千萬世 감흠怨讐 大報壇의 盟誓하고
 朝宗門 발오나가 慕華關의 留陣하니
 大將의 李忠武오 副將의 林慶業이
 金應河로 先鋒하고 南怡로 突擊하야
 黔川兵馬 七千을난 鄭監司 거나리고
 雙嶺軍士 三千을난 孫藍浦 거나리고
 南樓불의 忠魂義魂 金仙源도 가자가자
 그느마 死節하니 차차로 살아나서
 山海關 돌아나마 南京壯士 어불으니
 水陸都總 都元帥는 復興漢室 諸葛先生
 掌上의 太公兵法 胸中의 春秋大義
 鞠躬盡瘁 白羽扇은 指揮若定 失蕭曹라
 六出祈山 苦心이오 五丈秋風 餘振으로
 李提督 留都하고 우리天子 扈衛하야
 白旌黃鏑 서우고서 復讐二字 거러노코
 縞衣素裳 눈물쏟여 不共戴天 誥命페디
 於皇上帝 赫怒시고 高廟神靈 幽憤이라
 오랑키만 자불마음 華人하나 다칠서라

가는곳이 너版圖오 만니나니 너赤子라
 路左路右 黃堂白叟 加額하고 相與泣曰
 周家車馬 반감도다 漢室威儀 다시보니
 언익나 蔚抑흔 義兵들이 예도나고 제도난다
 滹沱河 건너여서 易水長城 덩허나가
 戰鼓를 울리며서 乘勝長驅 들어가니
 雷霆이 지치논듯 乾坤이 뒤놓논듯
 燕京을 짓발부이 胡王城이 平地로다
 周倉의 麤拳으로 洪沱時를 씌여니야
 馬岱의 鐵索으로 동허노코 數罪하디
 기갓한 너히類가 入帝中原 멧번제고
 五國城 徽欽무덤 皇宋인들 훑일닌야
 네도또한 遺種으로 寧古塔이 足하거닐
 華夷之分 모르고서 桀驚意思 敢生하야
 寓公山川 더럽히고 周公典章 어질으자
 遼東부터 侵虜할제 長蛇封豕 되얏도다
 李自成 依持하고 吳三桂 소欺고서
 天下의 丈夫업다 忽必烈의 써을바다
 偃然히 中國들의 朱氏臣民 號令하고
 轉旆東南 편지날려 明亡하니 네아니야
 氣數舛逆 타시로다 天命네게 이실소냐
 五帝三皇 傳授地를 네집을 주단말가
 夫子春秋 大一統이 네손의 가단말가
 甸服後服 九封疆이 네게奉貢 하단말가
 鄒魯閩洛 賢聖族이 네게臣僕 하단말가
 禮樂之物 넷지비서 慷慨悲歌 멧스람고
 네부터 中夏夷狄 各各界限 달너시니
 瀚海大漠 네곳이오 牛羊水草 네姓이라
 陰山畋獵 네職事오 穹廬毳幕 네居處라
 네風土 鞞鞞이오 네種類 獯子로다
 小可以爲 酋長이오 大可以爲 老單于라
 母姓손난 部落이라 宗廟百官 네當하머
 皮服입난 腰領이라 山龍黼黻 네當하야
 熟女眞의 生女眞이 四方貢賦 머엇하머
 大禽獸의 小禽獸라 城闕宮府 僭濫하다
 無端히 分外마음 常道를 어그려쳐
 三百年 涵育恩德 一朝의 疇바리고
 하날소고 날을순들 네털썩네 贖罪하할소냐

大明復讎歌

逼近燕京 建都設施 晋姜虜 指嗾로다
內服갓한 朝鮮날아 뒤를먼저 찢을찌기
千里生靈 魚肉이오 百年衣冠 汚衄이라
世子大君 瀋陽거럼 그아니 더욱憤痛
汗아汗아 이농汗아 네罪를 네알소나
망아리기 벗기치고 멀이를 비혀니여
피를뵈히 철한後의 蚩尤旗의 넓히달고
凱歌를 부리며서 古都를 도리실제
劉綎獎軍 敗沒하던 그爻象 싱각하니
貴盈哥 乘勝할제 喬遊擊 어딤간노
미드니 朝鮮이라 左右營을 쏘예시니
訊雷갓한 左營軍士 물불이라 가릴소나
矢盡力窮 金將軍은 싸히서서 죽엇도다
右中營 將官等은 무신구경 안자선고
하나하나 秉彝之心 가자시면 차마보고 이실소나
勢바감의 換腸하야 皇朝를 背叛하고
豺狼갓한 建州盜賊 腹心이 되야도다
멀이씩근 니面目은 父母遺體 아닐소나
屈膝하고 頓首할제 네거동 哀殘하다
皇天이 네리보사 人間의 돌씩엿다
칼춤추던 倭兵三百 논논치 招魂하야
쇠머리로 제지내니 異類라도 奇特하다
우리皇帝 가라사디 朝鮮本心 니아노니
丙子年 城下盟은 今日復讎 快찬을야
곳곳지 崇禎處士 뉘아이 蹈舞할이
어화 天運이야 文武疆土 ㄷ찾거라
宗廟의 飲止하고 太學의 獻馘하고
天地의 昭告하고 山川의 遍祭하야
大明日月을 다시불가 하노라

天君復位歌

上同凡八十一句

제안진이 萬里官主人인가 자네노리 드러보니
燕京盜賊 滅하고서 大明皇帝 다시서워
天下을 統率하니 그아니 壯할소나
그러나 자네몸의 當할일이 쏘한금심 적잔토다
唯皇上帝 降衷홀제 자네天君 赫赫하다
堯舜갓한 本性이오 禹湯갓한 明命이라

[현대역]

대명복수가(大明復讎歌)

만리관(萬里館)에 술 취하고 만리추풍(萬里秋風) 다다라서
 고백행(古栢行)¹ 외운 후(後)에 출사표(出師表)² 노래하니
 당송 이상(唐宋以上) 다 더지고 대명소식(大明消息) 어디런고
 남녕토주(南寧土州)³ 들어간 후(後) 영력연호(永曆年號)⁴ 그만이라
 당우천지(唐虞天地) 있건만은 강한조종(江漢祖宗) 글렀도다
 만절필동(萬折必東)⁵ 이 한 구(句)는 선조일생(宣祖一生) 말씀이오
 북노(北虜)치자 이 경영(經營)은 영릉(寧陵)십년 부심(腐心)⁶이라
 유시군(有是君) 하건마는 무시신(無是臣)의 내하(奈何)런고
 욕만은하(欲挽銀河) 세구도(洗舊都)는 숙고대왕(肅考大王) 여도시(輿圖詩)라
 세대(世代)가 침원(寢遠)하여 박물세고(薄物細故)⁷ 되단말가
 강약(彊弱)이 부적(不敵)하여 함분인통(含憤忍痛)⁸ 하단말가
 해마다 동지행인(冬至行人) 압강(鴨江)⁹건너 어디가노
 오호오호(嗚呼嗚呼) 복오호(復嗚呼)라 처사대담(處士大談) 하여보세
 금년태세(今年太歲) 갑신(甲申)이라 천도무왕(天道無往) 부복(不復)일세
 풍시쇠란(風詩衰亂) 극(極)한 중(中)의 비풍하천(匪風下泉)¹⁰ 끝에 있고
 시월건음(十月乾陰) 성한 곳의 지뢰양획(地雷陽晝) 다시 나니
 호무백년(胡無百年) 옛말이라 제 명(命)이라 오랄소냐
 숭정황제(崇禎皇帝)¹¹ 유민(遺民)들아 와신상담(臥薪嘗膽)¹² 몇 백년고
 조정무신(朝廷武臣) 기다리면 황하지수(黃河之水) 말기로다¹³
 만고충의(萬古忠義) 다 모아서 타수연운(唾手燕雲)¹⁴ 하여보세
 삼대인물(三代人物) 상의(尙矣)로다 춘추이하(春秋以下) 세어보니
 존주실(尊周室) 양이적(攘夷狄)은 관이오(管夷吾)¹⁵도 이름 좋고
 삼촌설(三寸舌)¹⁶ 각제진(却帝秦)은 노중련(魯仲連)¹⁷이 상쾌(爽快)하다
 항연사제(抗燕死齊) 왕촉(王蠋)¹⁸이오 소오패월(沼吳霸越) 망려(茫蠡)로다
 편초(鞭楚)하던 오자서(伍子胥)¹⁹오 보한(報韓)하던 장자방(張子房)²⁰이
 굴기추호(掘起龜豪) 고사(姑捨)하고 중흥명장(中興名將) 다 부르니
 강의대관(絳衣大冠) 광무(光武) 때요 삼국정통(三國正統) 촉한(蜀漢)이라
 반벽강남(半壁江南) 남도송(南渡宋)은 충분(忠憤) 더욱 격절(激切)하다
 이백기(李伯起) 장위공(張魏公)은 삼하순무(三河巡撫) 먼저가고
 등사도(鄧司徒) 풍대수(馮大樹)는 유병경략(幽并經略) 또 보내니
 전운통판(轉運通判) 관준(冠準)이오 찬획종사(贊畫從事) 방통(龐統)이라
 육군도독(陸軍都督) 뉘할런고 악무목(岳武穆)²¹ 한세충(韓世忠)²²이
 수군도독(水軍都督) 뉘할런고 관운장(關雲長) 조자룡(趙子龍)이

유격장(遊擊將)에 오한(吳漢) 가복(賈復) 복병장(伏兵將)에 장비(張飛) 마초(馬超)
 그나마 충신의사(忠臣義士) 몇몇이 모였던고
 십년한절(十年漢節) 소중랑(蘇中郎)23은 매율사기(罵律辭氣) 당당하고
 일편봉사(一篇封事) 호담암(胡澹庵)24은 참회담봉(斬檜談鋒) 능름하다
 소열묘(昭烈廟)25에 통곡하던 북지왕담(北地王諶) 맞아오고
 주중(舟中)에 강학(講學)하던 육수부(陸秀夫)26들 없을소나
 뇌만춘(雷萬春) 남제운(南霽雲)27은 액완(扼腕)28하고 뛰어들고
 장숙야(張叔夜)29 강만리(江萬理)는 분비(奮臂)30하고 일어서니
 강회보장(江淮保障) 장중승(張中丞)은 풍운(風雲)이 진탕(震盪)31하고
 성복종용(盛服從容) 조통판(趙通判)은 의기(義氣)도 삼엄(森嚴)하다
 기작산하(氣作山河) 조정(趙鼎)이오 삼호과하(三呼過河) 종택(宗澤)이라
 성인취의(成仁就義) 문문산(文文山)32과 분주륙력(焚舟戮力) 장세걸(張世傑)과
 매적불굴(罵賊不屈) 안고향(顏杲鄉)과 포제호곡(泡帝號哭) 이약수(李若水)는
 장부열기(丈夫烈氣) 분격(憤激)하야 두우간(斗牛間)33의 뺏쳐도다
 본조인물(本朝人物) 쫓아갈 이 홍무후(洪武後) 누누런고
 창업공신(創業功臣) 서달(徐達)34 화운(花雲) 건문사절(建文死節) 황관경청(黃觀景清)
 천지경륜(天地經綸) 이태사(李太師)오 일월정충(日月精忠) 방효유(方孝孺)35라
 엄기항(嚴起恒) 찾아가니 구무거(瞿武柁)의 눈물일세
 유백온(劉伯溫)은 천문(天文)보고 사가법(史可法)36은 격서(檄書)지어
 절강장사(浙江壯士) 삼천(三千)이요 하내(河內)37정병(精兵) 십만(十萬)이라
 관서병(關西兵)은 좌익(左翼)하고 산동병(山東兵)은 우익(右翼)하야
 중원(中原)만 혼자가랴 동국(東國)도 가자시라
 임진년(壬辰年) 재조은덕(再造恩德) 신종38황제(神宗皇帝) 잇을소나
 남한산성(南漢山城) 통곡하신 우리대왕 충분(忠憤)이라
 척화(斥和)39하던 삼학사(三學士)40는 견용(犬戎)41을 庭叱하고
 자결(自決)하신 동계선생(桐溪先生)42 사직동망(社稷同亡) 하졌더니
 정묘년(丁卯年)에 사절(死節)43하니 창성부사(昌城府使) 김시약(金時若)이
 금주역(錦州役)의 허총(虛銃)놓은 성주의사(星州義士) 이사룡(李士龍)44이
 홍두곡(洪杜谷)45은 집이 없고 이석계(李石溪)는 모여드니
 같은 의리(義理) 와룡초당(臥龍草堂) 표은처사(瓢隱處士) 풍절(風節)46이라
 호척(胡勅) 나와 행배(行盃)47할 제 타락잔(駝駱盞)48을 누 얹으며
 산동장의(山東倡義) 강성인(姜姓人)께 조선격문(朝鮮檄文) 누 지을고
 임인관(林寅觀) 등(等) 보낸 일49은 조정공사(朝廷公事) 애답도다
 임하처사(林下處士) 북벌의(北伐議)는 집집이 외웠으니
 백호대야(白湖大爺) 병거제도(兵舉制度) 이번에는 슬지로라
 반국(叛國) 괴수(魁首) 홍립(弘立)50이는 도시(都市) 중(中)에 거열(車裂)51하고
 강도실수(江都失守)52 김경징(金慶徵)은 종루(鍾樓)밑에 효수(梟首)53하고
 강화대신(講和大臣) 최정승(崔政丞)은 남대문에 부벌(付罰)54하고

창해역사(滄海力士) 방망이55로 한(汗)의 비(碑)를 두드리고
 주부자(朱夫子)56 강목필(綱目筆)로 존주록(尊周錄)57을 세운 후에
 천만세(千萬世) 값을 원수(怨讐) 대보단(大報壇)58에 맹세하고
 조종문(朝宗門) 바로 나가 모화관(慕華關)59에 유진(留陣)하니
 대장(大將)에 이충무(李忠武)오 부장(副將)에 임경업(林慶業)이
 김응하(金應河)로 선봉(先鋒)하고 남이(南怡)로 돌격(突擊)하여
 검천병마(黔川兵馬) 칠천일랑 정감사(鄭監司) 거느리고
 쌍령(雙嶺) 군사(軍士) 삼천일랑 손남포(孫藍浦) 거느리고
 남루(南樓)불에 충혼(忠魂) 의혼(義魂) 김선원(金仙源)60도 가자가자
 그나마 사절(死節)하니 차차로 따라나서
 산해관(山海關) 돌아나와 남경장사(南京壯士) 어우르니
 수륙도총(水陸都總) 도원수(都元帥)는 부흥한실(復興漢室) 제갈선생(諸葛先生)
 장상(掌上)에 태공병법(太公兵法)61 흉중(胸中)에 춘추대의(春秋大義)
 국궁진취(鞠躬盡瘁)62 백우선(白羽扇)63은 지휘약정(指揮若定) 실소조(失蕭曹)라
 육출기산(六出祈山)64 고심(苦心)이오 오장추풍(五丈秋風) 여진(餘振)으로
 이제독(李提督) 유도(留都)하고 우리 천자 호위(扈衛)하여
 백정황홀(白旌黃鑄) 세우고서 복수(復讐) 이자(二字) 걸어놓고
 호의(縞衣) 소상(素裳) 눈물뿌려 불공대천(不共戴天)65 고명(誥命)폐지
 어황상제(於皇上帝) 혁노(赫怒)66시고 고묘신령(高廟神靈) 유분(幽憤)이라
 오랑개만 잡을 마음 화인(華人) 하나 다칠세라
 가는 곳이 내 판도(版圖)오 만나는 이 너 적자(赤子)67라
 노좌노우(路左路右) 황당백수(黃堂白叟) 가액(加額)68하고 상여읍왈(相與泣曰)
 주가거마(周家車馬) 반갑도다 한실(漢室) 위의(威儀) 다시보니
 얼마나 울억(蔚抑)한 義兵들이 예도 나고 제도 난다
 호타하(滹沱河) 건내어서 역수장성(易水長城) 덮어나가
 전고(戰鼓)를 울리면서 승승장구(乘勝長驅) 들어가니
 뇌정(雷霆)69이 지치는 듯 건곤(乾坤)이 뒤눕는 듯
 연경(燕京)을 짓밟으니 호왕성(胡王城)이 평지로드
 주창(周倉)의 추권(麤拳)으로 홍타시(洪沱時)70를 끌어내어
 마대(馬垆)71의 철삭(鐵索)으로 동여놓고 수죄(數罪)72하되
 개같은 너희 류(類)가 입제중원(入帝中原) 몇 번째고
 오국성(五國城) 휘흥(徽欽) 무덤 황송(皇宋)인들 할일이냐
 너도 또한 유종(遺種)으로 영고탑(寧古塔)73이 족하거늘
 화이지분(華夷之分)74 모르고서 걸오(桀驁)75 의사(意思) 감생(敢生)하여
 우공산천(寓公山川) 더럽히고 주공(周公典章) 어지르자
 요동(遼東)부터 침노(侵虜)할 제 장사봉시(長蛇封豕)76 되었도다
 이자성(李自成) 의지하고 오삼계(吳三桂) 속이고서77
 천하의 장부없다 흘필열(忽必烈)78의 본을 받아

언연(偃然)79히 중국 들어 주씨신민(朱氏臣民) 호령하고
 전패동남(轉旆東南) 편지 날려 명망(明亡)하니 네 아니냐
 기수(氣數)80 천역(舛逆)81 탓이로다 천명 네게 있을소냐
 오제삼황(五帝三皇)82 전수지(傳授地)를 네 집을 주단말가
 부자(夫子) 춘추(春秋) 대일통(大一統)이 네 손에 가단말가
 전복후복(甸服後服)83 구봉강(九封疆)이 네게 봉공(奉貢) 하단말가
 추로민락(鄒魯閩洛) 현성족(賢聖族)이 네게 신복(臣僕)84 하단말가
 예악지물(禮樂之物) 옛집에서 강개비가(慷慨悲歌) 몇 사람고
 옛부터 중하이적(中夏夷狄)85 각각 계한(界限) 달랐으니
 한해대막(瀚海大漠)86 네 곳이오 우양수초(牛羊水草) 네 성(姓)이라
 음산전렵(陰山畋獵)87 네 직사(職事)오 궁려취막(穹廬毳幕) 네 거처(居處)라
 네 풍토(風土) 말갈(靺鞨)이오 네 종류 달자(獼子)로다
 소가이위(小可以爲) 추장(酋長)이오 대가이위(大可以爲) 노선우(老單于)라
 모성(母姓) 쫓는 부락이라 종묘(宗廟) 백관(百官) 네 당(當)하며
 피복(被服)입는 요령이라 山龍□□ 네 당(當)하여
 숙여진(熟女眞)88에 생여진(生女眞)89이 사방(四方) 공부(貢賦)90 머엇하며
 대금수(大禽獸)에 소금수(小禽獸)라 성궐(城闕) 궁부(宮府) 참람(僭濫)91하다
 무단히 분외(分外) 마음 상도(常道)를 어그러쳐
 삼백년 함육은덕(涵育恩德) 일조(一朝)에 다 버리고
 하늘 쏘고 날을 쏘들 네 털 빼내 속죄 다할소냐
 핏근(逼近)92연경(燕京) 건도설시(建都設施) 진강노(晉姜虜) 지주(指嗾)93로다
 내복(內服)같은 조선나라 뒤를 먼저 찌를 적에
 천리(千里) 생령(生靈) 어육(魚肉)이오 백년의관(百年衣冠) 오늬(汚衄)94이라
 세자대군(世子大君) 심양(瀋陽)걸음 그 아니 더욱 분통
 한(汗)아 한(汗)아 이놈 한(汗)아 네 죄를 네 알소냐
 망아래기 벗겨치고 머리를 베어내어
 피를 뽑혀 철한 후에 치우기(蚩尤旗)에 높이 달고
 개가(凱歌)95를 부르면서 고도(古都)를 도리실 제
 유정장군(劉綎獎軍) 패몰(敗沒)하던 그 효상(爻象)96 생각하니
 귀영가(貴盈哥)97 승승(乘勝)할 제 교유격(喬遊擊)98 어디 갔노
 믿으니 조선이라 좌우영(左右營)을 꾸몄으니
 신뢰(訊雷)99같은 좌영군사(左營軍士) 물불이라 가릴소냐
 시진력궁(矢盡力窮) 김장군(金將軍)은 땅에 서서 죽었도다
 우중영(右中營) 장관(將官) 등은 무슨 구경 았았던고
 하나하나 병이지심(秉彝之心)100 가졌으면 차마보고 있을소냐
 세(勢) 봐가며 환장(換腸)하여 황조(皇朝)를 배반하고
 시랑(豺狼)같은 건주도적(建州盜賊) 복심(腹心)이 되었도다
 머리깎은 네 면목은 부모유체(父母遺體) 아닐소냐

굴슬(屈膝)101하고 돈수(頓首)102할 제 네 거동 애잔하다
황천(皇天)이 내려 보사 인간(人間)에 돌 데 업다
칼춤 추던 왜병 삼백 날날이 초혼(招魂)하여
쇠머리로 제(祭) 지내니 이류(異類)라도 기특하다
우리 황제 가라사대 조선 본심 내 아노니
병자년 성하맹(城下盟)은 금일 복수 쾌(快)찮으라
곳곳이 송정처사(崇禎處士) 뉘 아니 도무(蹈舞)103하리
어화 천운이야 문무강토(文武疆土) 다 찾거라
종묘(宗廟)에 음지(飲止)하고 태학(太學)에 헌곡(獻馘)104하고
천천에 소고(昭告)하고 산천에 편제(遍祭)105하여
대명일월(大明日月)을 다시볼까 하노라

천군복위가(天君復位歌)

上同 凡八十一句

저 얹은 이 萬里官主人인가 자네 노래 들어보니
연경도적(燕京盜賊)1 멸하고서 대명황제(大明皇帝) 다시 세워
천하를 통솔하니 그 아니 장할소냐
그러나 자네 몸에 당할 일이 또한 근심 적잖도다
유황상제(唯皇上帝) 강총(降衷)2할 제 자네 천군(天君)赫赫(赫赫)하다
요순(堯舜)같은 본성(本性)이오 우탕(禹湯)같은 명명(明命)이라

[각주]

- 1) 고백행(古柏行) : 두보가 촉한(蜀漢)의 고국에 다니러 가서 제갈공명(諸葛孔明)의 묘(廟)에 참례할 때 묘 앞에 우뚝 선 고백(늙은 촉백나무)을 바라보고 감회에 젖어 고백행을 읊음. 재목이 너무 크면 용재(用材)되기 어렵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읊은 시.
- 2) 출사표(出師表) : 위(魏)나라를 치기 위해 출병할 때, 촉(蜀)나라 황제 유선(劉禪)에게 바친 글로서, 국가의 장래를 우려한 전문(全文)은 제갈공명의 진정(眞情)을 토로한 정열적인 고금(古今)의 명문(名文).
- 3) 남녕(南寧) : 현재 광서장족자치구로 진(晉)대(256~420년)에는 이미 현이 설치되었으며 당(唐)대 이후는 동남아시아 각지와 교역의 중계점으로써 번영한 지역.
- 4) 영력(永曆) :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영력제(永曆帝).
- 5) 만절필동(萬折必東) : 황하는 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말.
- 6) 부심(腐心) : 근심, 걱정으로 마음을 썩임. 무엇을 생각해 내느라고 몹시 애를 씹
- 7) 박물세고(薄物細故) : 아주 자질구레하고 변변치 못한 사물.
- 8) 함분인통(含憤忍痛) :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아픔을 견딤.
- 9) 압강(鴨江) : 압록강.
- 10) 비풍하천(匪風下川) : 비풍(匪風)과 하천(下川)은 시경(詩經) 중의 <회풍(檜風)>과 <조풍(曹風)>의 편명으로, 혼란기에 약소국으로서 주나라의 어진 도를 그리워하는 노래.
- 11) 숭정(崇禎) : 명나라 숭정제의 연호.
- 12) 와신상담(臥薪嘗膽) :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싸움에서 전해지는 고사이며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쓰디 쓴 곰쓸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겼다는 뜻.
- 13) 황하지수(黃河之水) 말기로드 : 황하는 워낙 장대하여 마를 일이 없으므로 불가능한 일의 비유.
- 14) 타수(唾手) : 손에 침을 뱉고 일을 착수함. 기운을 내어 일을 시작한다는 뜻.
- 15) 관이오(管夷吾) :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인 관중(管仲). 소년시절부터 평생토록 변함이 없었던 포숙아와의 깊은 우정은
- 16) 삼촌설(三寸舌) : 전국시대(戰國時代) 유세가들이 세 치 혀로 함중연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데서 유래한 말.
- 17) 노중련(魯仲連) :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의 높은 절의(節義)를 가진 은사(隱士)의 한 사람. 그는 무도(無道)한 진(秦)나라가 천하를 차지한다면 “나는 동해로 걸어 들어가 죽겠다.[連有踏東海而死耳]”고 맹세하여 그 절의를 높인 바 있음.
- 18) 왕촉(王蠋) :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 사람. 제(齊)나라가 연(燕)나라에게 패하자 항복하라는 연(燕)나라의 권고를 물리치고 자결함.
- 19) 오자서(伍子胥) :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가로 초나라 사람이었으나 아버지와 형이 살해당한 뒤 오나라를 섬겨 복수함. 오나라 왕 합려를 보좌하여 강대국으로 키웠으나, 합려의 아들 부차에게 중용되지 못하고 모함을 받아 자결함.
- 20) 장자방(張子房) :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인 장량(張良). 진승 · 오광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유방의 진영에 속하였으며, 후일 항우와 유방이 만난
- 21) 악무목(岳武穆) : 여진족 군대에 대항해 싸웠던 남송 초기의 장군 악비(岳飛).

- 22) 한세충(韓世忠) : 자는 양신(良臣)으로 남송 때 방랍의 난을 진압하고, 금에 대항한 명장. 한세충은 악비(岳飛)와 유기(劉錡) 등과 함께 금군의 침입을 막아 송조(宋朝)의 명맥을 유지하고 없어진 영토를 회복하려고 힘씀.
- 23) 소중랑(蘇仲郎) : 중국(中國) 전한(前漢)의 충신(忠臣)인 소무(蘇武)의 벼슬이름. 무제 때 흉노(匈奴) 사신(使臣)으로 갔다가 억류(抑留)된 지 19년만에 귀국(歸國). 흉노에게 억류된 십년 동안 사신의 부절을 놓지 않고 절개(節概)를 굳게 지킨 것을 익컬음.
- 24) 호담암(胡澹庵) : 중국 남송 때 선비로, 밀봉한 상소문을 올려 금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한 사람.
- 25) 소열묘(昭烈廟) : 촉나라 황제 유비의 묘.
- 26) 육수부(陸秀夫) : 남송 말기 원(元)과의 애산전투에서 패전이 임박하자 왕자를 업고 바다로 뛰어든 충신.
- 27) 남제운(南霽雲) : 뇌만춘과 남제운은 당 현종 때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물러나지 않았던 장수.
- 28) 액완(扼腕) : 분격(憤激)하여 팔짱을 함.
- 29) 장숙야(張叔夜) : 송나라 때의 사람으로 금(金)나라 군대와 싸워 용맹을 떨침.
- 30) 분비(奮臂) : 나보란 듯이 뽐내는 뜻으로 팔뚝을 걷어붙임.
- 31) 진탕(震盪) : 몹시 울려서 흔들림.
- 32) 문문산(文文山) : 중국 남송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문천상(文天祥). 송나라가 원나라에 항복하자 저항하다 체포되었고 쿠빌라이칸이 그의 재능을 아껴 몽고에 전향을 권유했지만 끝내 거절하고 죽음을 택함.
- 33) 두우간(斗牛間) :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의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 사이.
- 34) 서달(徐達) : 중국 명나라의 건국 공신. 주원장의 부하로 통군원수, 강남행추밀원사, 좌상국 등을 지냈고 원군 토벌에서는 25만의 군세를 총지휘했으며 주원장이 즉위하자 무관(武官) 제일의 자리를 차지함.
- 35) 방효유(方孝孺) : 중국 명나라 초기의 학자. 1402년 연왕(燕王: 뒤의 영락제)이 황위(皇位)를 찬탈한 뒤, 그에게 즉위의 조(詔)를 기초하도록 명하자 붓을 땅에 내던지며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하자 연왕은 노하여 그를 극형에 처함.
- 36) 사가법(史可法) : 중국 명나라 말의 충신.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에 쳐들어오자 군사를 이끌고 나갔으나 베이징 함락의 보고가 들어와 되돌아갔다가 양저우에서 예친왕 도도의 청군의 공격을 받아 붙잡혀 살해됨.
- 37) 하내(河內) : 남성(河南省) 황하(黃河) 이북(以北) 땅의 총칭(總稱).
- 38) 신종(神宗) : 중국 명(明)의 제14대 황제인 만력제(萬曆帝)로서 '만력중흥(萬曆中興)'이라고 불리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옴. 후에 친정(親政)을 하면서 황제의 역할과 정무(政務)를 내팽개치는 '태정(怠政)'을 하여 명(明)의 정치적 혼란을 가져와 멸망으로 이끔.
- 39) 척화(斥和) : 화친하자는 논의를 배척함.
- 40) 삼학사(三學士) :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청(淸)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한 세 학사인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말함. 삼학사는 결사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선양에 잡혀가 참형됨.
- 41) 견용(犬戎) : 중국(中國) 고대(古代) 섬서성에 살던 오랑캐의 이름.
- 42) 동계선생(桐溪先生) : 조선 중기 문신 정온(鄭蘊).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이루어지자 사직하고 덕유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5년 만에 죽음.

43) 사절(死節) : 절개(節概)를 위(爲)하여 죽음.

44) 이사룡 : 청(淸)이 명(明)을 정벌하기 위해 조선에 원병했을 때 포사(砲士)로 징발된 이사룡이 금주(錦州)에서 명 장군조대수와 대전(對戰)하였을 때 공포(空砲)로 응전하다가 청군에게 적발되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임진왜란 때 명에게 입은 은덕을 상기하며 배반이 불가함을 역설하다 죽은 사건.

45) 홍두곡(洪杜谷) : 조선시대 지사(志士)인 홍우정(洪宇定). 본관은 남양(南陽).

46) 와룡초당(臥龍草堂) 표은처사(瓢隱處士) 풍절(風節) : 명(明)이 청(淸)에 망한 것을 개탄하여 와룡산하 도연 위에 와룡초당을 짓고 은거한 표은 김시온의 행적.

47) 행배(行盃) : 잔에 술을 부어 돌림.

48) 타락(駝酪) : 타락죽(駝酪粥). 타락죽은 곱게 간 쌀가루를 우유와 섞어 끓여 만들며, 우유죽이라고도 부름. 우유로 만든 타락죽은 귀한 음식 중의 하나로,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등 특별한 경우에 먹는 보양식.

49) 보낸 일 : 조선 현종 8년에 제주도에 표류한 95명의 명나라 사람(明人)들을 압송하려 하자 그 결정에 반대하는 신하들과 유생들의 상소가 이어진 사건. 임인관 등 95명은 명나라 부활을 노리는 망명정부인 영력황제(永曆皇帝) 정권의 백성들로, 전에도 명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청나라에 발각되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기에 현종은 그들을 모두 북경으로 압송함.

50) 강홍립(姜弘立) : 조선 중기의 무신. 명나라의 원병으로 5도도원수(五道都元帥)가 되어 후금을 쳤으나 대패함.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부차(富車)에서 대패하고, 강홍립은 조선군의 출병이 부득이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적진에 통고한 후 군사를 이끌고 후금에 항복함.

51) 거열(車裂) :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그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찢어 죽임

52) 강도실수(江都失守) : 강도실함(江都失陷). 인조 15년 청의 침입으로 조정의 전직·현직 고관 등 많은 사람이 강화도로 피난하고, 검찰사 김경징(金慶徵)과 유수(留守) 장신(張紳)으로 방위하게 하는데, 강화도 방위의 총사령관 김경징은 북방민족이 수전(水戰)에 능하지 못하다고 속단하고, 방비를 허술히 하여 청에게 함락당한 사건.

53) 효수(梟首) : 대죄(大罪)를 범한 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아 군중 앞에 공시함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던 일.

54) 부벌(付罰) : 벌할 것을 청함.

55) 방망이 : 사마천의 사기 <장량열전>에 장량과 함께 진시황을 저격하려다가 실패하였다고 전한다는 인물로, 그가 사용하던 쇠방망이가 무려 120근이 되었다고 함.

56) 주부자(朱夫子) : 주자(朱子).

57) 존주록(尊周錄) :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이태수(李泰壽)가 존명양이(尊明攘夷)의 사적(事蹟)을 간추린 책.

58) 대보단(大報壇) : 조선시대에 명(明)나라 태조(太祖)·신종(神宗)·의종(毅宗)을 제사 지낸 사당으로 숙종 31년 창덕궁 금원 옆에 설치함.

59) 모화관(慕華館) :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영접한 곳.

60) 김선원 : 병자호란 때 선원(仙源) 김상용이 강화도로 침략한 청군에 대항하여 남문루 위에 염초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국한 사건.

61) 태공병법(太公兵法) : 강태공의 병법.

62) 국궁진체(鞠躬盡瘁) :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표현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를 위해 힘쓰는 뜻

63) 백우선(白羽扇) : 제갈량이 들고 있었다는 하얀 새의 깃을 모아 만든 부채.

64) 육출기산(六出祁山) : 기산에 여섯 번 나간다는 뜻으로 제갈량이 북벌을 여섯 번 시도한 것을 뜻함.

65) 불공대천(不共戴天) : 한 하늘 아래서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원수(怨讐)라는 뜻으로, 원한(怨恨)이 깊이 사무친 원수(怨讐)를 이르는 말.

66) 혁노(赫怒) :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냄.

67) 적자(赤子) : 갓난아이. 임금이 백성(百姓)을 갓난아이로 여기어 사랑한다는 뜻으로, 백성(百姓)을 일컫는 말

68) 가액(加額) :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 손을 이마에 얹음.

69) 뇌정(雷霆) : 우레.

70) 홍타시(洪他時) : 청나라의 2대 황제.

71) 마대(馬埜) : 축한의 장수. 서량태수 마등의 형의 아들로 마초의 사촌동생.

72) 수죄(數罪) : 죄(罪)를 저지른 행위(行爲)를 들추어 열거(列舉)함.

73) 영고탑(寧古塔) : 청나라 초기에 관외로 유배 보내던 장소.

74) 화이지분(華夷之分) :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

75) 걸오(桀鰲) : 성질과 심성이 거칠고 사나움.

76) 장사봉시(長蛇封豕) : 장사(長蛇)는 긴 뱀, 봉시(封豕)는 큰 돼지. 탐욕(貪慾)이 심한 자에게 비유한 말.

77) 속이고서 : 중국 명말 청초의 무장(武將)인 오삼계가 유적 이자성이 베이징을 함락하고 귀순을 권하자 청나라의 중국 본토 진출을 도움. 중국 전토 평정에도 앞장서 3번 중 하나가 되었고 후에 ‘3번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함.

78) 흘필열(忽必烈) :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한문식 표현.

79) 언연(偃然) :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倨慢)스러움.

80) 기수(氣數) : 길흉화복의 운수.

81) 천역(舛逆) : 서로 뒤집혀 거슬리고 어긋남.

82) 오제삼황(五帝三皇) :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인 삼황(三皇)과 오제(五帝). 즉, 복희, 신농, 황제의 삼황과 소호, 전욱, 제곡, 요, 순의 오제.

83) 전복후복(甸服侯服) : 전복(甸服)과 후복(侯服). 전복은 중국에서 둔 오복(五服)의 하나로 상고 때는 왕기(王畿)로부터 5백 리 안의 땅, 주나라 때에는 후복(後服)의 다음 5백 리 안의 땅. 후복은 왕기(王畿)의 주위 오백 리, 혹은 오백 리에서 천 리 사이의 땅.

84) 신복(臣僕) : 신하(臣下).

85) 중하이적(中夏夷狄) : 중화(中華)와 이적(夷狄). 중국과 오랑캐.

86) 한해대막(瀚海大漠) : 넓은 사막. 중국에서는 주로 고비 사막을 이름.

87) 음산전렵(陰山畋獵) : 그늘진 산에서 밭 갈고 수렵함.

88) 숙여진(熟女眞) : 만주(滿洲) 남서부(南西部)에 있어 요(遼)나라에 잘 복종(服從)하던 여진족(女眞)

族)

- 89) 생여진(生女眞) : 중국 지린성[吉林省] 동북지방 곳곳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
 - 90) 공부(貢賦) : 공물(貢物)과 부세(賦稅).
 - 91) 참람(僭濫) : 분수에 넘쳐 외람되다.
 - 92) 핏근(逼近) : 매우 가까이 닥침.
 - 93) 지주(指嗾) : 달라고 꼬여서 무엇을 하도록 부추김.
 - 94) 오늬(汚衄) : 더러운 코피. 모욕을 뜻함.
 - 95) 개가(凱歌) : 개선거(凱旋歌).
 - 96) 효상(爻象) : 좋지 못한 몰골.
 - 97) 귀영가(貴盈哥) : 병자호란때 후금군을 지휘하던 누르하치의 둘째 아들인 다이산.
 - 98) 교유격(喬遊擊) : 명나라 장수 교일기(喬一琦).
 - 99) 신뢰(迅雷) : 몹시 맹렬(猛烈)한 우레.
 - 100) 병이지심(秉彝之心) : 떳떳하게 타고난 천성(天性). 병이지성(秉彝之性).
 - 101) 굴슬(屈膝) : 무릎을 꿇어 절함. 남에게 굽힘.
 - 102) 돈수(頓首) : 공경(恭敬)하여 절을 할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꾸벅임.
 - 103) 도무(蹈舞) : 수무족도(手舞足蹈). 몹시 좋아서 날뛰는 모양.
 - 104) 헌궤(獻馘) : 헌궤지례(獻馘之禮). 적과 싸워서 이겨 잘라온 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임금에게 바치던 예식.
 - 105) 편제(遍祭) : 두루 제사지냄.
- 1) 연경도적(燕京盜賊) : 청(淸)나라를 지칭하는 말. 반청(反淸) 의식이 담긴 표현.
 - 2) 강총(降表) : 하늘이 사람에게 중정(中正)의 덕을 부여함. 하늘이 좋은 일을 내려 줌.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